

계엄군 무차별 구타 격분 '경적시위' 들끓어

33년전 그날엔...
되돌아 보는 5·18

5월 항쟁의 전환점으로
그들의 송고한 뜻·애환 기려
오늘 금남로 차량시위 재연

국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광주를 '폭도'로 몰았던 MBC(동구 공동) 방송국을 불태우기도 했다.

급기야 계엄군은 밤 11시, 광주역에서 버스를 앞세워 저지선을 돌파하던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하기에 이른 것. 당시에는 광주 곳곳에서 계엄군이 후퇴하는 상황이었지만, 계엄군의 병력과 물자가 당도하는 광주는 계엄군이 필사적으로 사수해야만 하는 지역이었던 탓이다.

이로 인해 비무장 상태였던 다수의 시민들은 죽거나 부상을 입었고, 특히 이곳에서 희생된 2명의 주검이 다음날 아침 손수레에 실린 채 도청으로 운반되면서 시민군의 투쟁 의지는 더욱 굳건해지게 된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2013년 5월 20일, 시민들의 투지와 단합의 상징인 차량시위가 금남로 일대에서 다시 한번 재연된다. 이들은 영령들의 송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과 택시 노동자의 애환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1980년 5월20일 오후 택시와 버스를 앞세운 시민군이 금남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2) 20일 민주택시 기사 시위

1980년 5월20일 오전 7시, 3공수여단이 광주에 도착,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7여단과 11공수여단을 포함해 총 3400명으로 불어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지난밤부터 내리던 비가 이날 오전 9시경 그치자, 시민들은 하나 둘 시내 중심가로 몰려들었다. 오전까지의 별다른 충돌없이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오후 들면서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금남로를 뒤덮었다.

오후 3시, 금남로에서 경찰의 최루탄이 터지기 시작했고, 또다시 공수부대의 무차별 폭력과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됐다. 공수부대는 시내 곳곳에서 M16소총을 어깨에 메고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고, 3~4명이 한 조가

되어 무고한 시민까지 뒤쫓아가 곤봉으로 구타하며 무차별하게 연행했다. 과잉 진압에 격분한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자 도청으로'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민들과 계엄군의 공방전은 갈수록 고조됐다.

도청으로 향하는 시민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공수부대 간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은 오후 내내 이어졌다. 오후 6시40분 무등경기장에서 출발한 택시와 버스 200여대가 헤드라이트를 켜 채 경적을 울리며 시위에 가세, 계엄군의 저지선을 전일빌딩 앞까지 후퇴시킨다. 이때를 '5월 항쟁의 전환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마르지 않는 눈물

5·18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일인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 유족이 묘역에서 오열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연휴 사건·사고 잇따라...3명 숨져

황금 연휴가 이어진 이번 주말, 전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7일 오후 1시20분께 강진군 작천면 용상리 한 직선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아반떼 승용차가 가로수

를 들이받고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모(여·39)씨와 큰딸(10)이 숨지고, 남편 김모(41)와 두 자녀는 중상을 입어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40분께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단독주택 창고에서 조모(여·55)씨가 경운기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운기의 시동이 걸려있는 점 등으로 운전이 서투른 정씨가 창고에서 경운기를 운행하다 조향장치 등에 받쳐 변을 당한 것

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또 19일 오후 4시 30분께는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신북정수장 인근에서 5t 운반차량에서 하차하던 굴착기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운전자 백모(39)씨가 굴착기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정상 체중 여학생 36%

“난, 똥똥하다”

지나치게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최근 정상 체중인 여자 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3~4명은 자신을 “똥똥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7만2229명 가운데 80.7%가 '정상체중'으로 조사됐다. 정상체중의 기준은 각 연령에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5~85% 범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정상 체중 비율은 각각 79.6%, 82.1%였다.

반면 실제로 몸무게가 정상보다 무거운 남녀 학생(과체중+비만) 비율은 각각 14.3%, 12.0% 정도였다. 과체중은 BMI 수준이 같은 연령대에서 85~95%에 해당하고, 비만은 95% 이상이거나 BMI 절대값 자체가 25를 넘는 경우다.

그러나 이처럼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상체중 학생 가운데 28.6%는 본인이 살찐 상태라고 생각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을 드러냈다. 특히 여자 중·고등학생의 왜곡 비율이 35.6%로 남학생(22.2%)보다 13%p 이상 높았다. /연필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5분 해질 19시 33분 달뜨기 14시 14분 달짐 01시 48분

황사주의
구름 많다 점차 맑겠고 옅은 황사 나타나는 곳 있겠다.

광주	맑음	15/24°C
목포	맑음	13/22°C
여수	맑음	15/23°C
나주	맑음	13/24°C
완도	맑음	15/24°C
구례	맑음	13/25°C
강진	맑음	14/23°C
해남	맑음	14/23°C
장흥	맑음	13/24°C
순천	맑음	12/24°C
영광	맑음	13/23°C
진도	맑음	14/22°C
전주	맑음	14/23°C
군산	맑음	13/20°C
남원	맑음	12/24°C
홍산도	맑음	13/19°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남서 0.5m 0.5~1.0m 주의 매우높음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1.0~1.5m 주의 매우높음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목포 09:15 02:23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22:02 15:15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여수 04:36 10:54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17:33 23:29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1/23	14/30	16/30	17/30	16/28	17/27

7억 상당 국유지를 區民 재산으로

광산구청 직원 노력...2필지 382㎡ 무상양여 '눈길'

광주시 광산구가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각고의 노력 끝에 7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현재 광산구보건소 부지로 사용 중인 국유지 2필지 382㎡를 광산구에 무상양여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행부의 무상양여 결정으로 시가 7억여원 상당의 광산구보건소 부지가 광산구민의 재산이 됐으며 올해부터 광산구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지 임대료 예산 1200여만원도 아낄 수 있게 됐다.

해당 부지는 광주 광산구의 전신인 전남 광산군 시절인 1963년 전남도지사를 통해 양여신청 공문을 내부부에

전달했지만 내부부가 국유지가 아니라서 이유로 거절 당했다. 이 부지가 일반 강정기 토지착취를 위해 만든 '동양척식주식회사'소유로 등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근거를 찾기 위해 전남도청, 국가기록원에 있는 관련 문서들을 모두 뒤졌다. 하지만 해당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포기 상태에서 있던 중 구에서 자체 보관 중인 문서에 눈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1963년에 작성된 폐기 일보직전의 국유재산 양여 관련 서류를 찾아 기재부에 제출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기재부 설득을 적극 거들었고 결국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내게 됐다. /최승렬기자 srchoi@

백령도 규모 4.9 지진

인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이틀에 걸쳐 10여차례의 지진이 관측됐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쪽 3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역대 6번째의 규모로, 지난달 21일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동일한 규모다.

규모 4.9 지진은 육지에서 발생 시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감지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Korea Be Inspired

홍길동과 함께 놀면서 배우다.

제15회 장성 홍길동축제

The 15th Jangseong HONGGILDONG Festival

2013. 5.24(금)~26(일) / 3일간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431)

NAVER Mobile 제15회 장성홍길동축제
http://tour.jangseong.go.kr

주최 장성군 후원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NH농협은행 Caffe Bene